

# DGIST 신임 총장에 국양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 국양 신임 총장, 어떤 사람인가

지난해 겨울, 손 전 총장의 사임 이후 4개월 만에 4대 총장이 신임되었다. 바로 국양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다.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개발한 세계적인 나노과학자이자 28년차 교육자인 그이지만, DGIST 구성원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다. 이번 4대 총장은 어떤 절차로 선출되었는지, 또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 국양 DGIST 제 4대 총장 (제공 = 홍보팀)

### [총장 후보자 모집부터 선출까지]

총장 선입까지의 전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예비후보자 모집 ▲ 후보자 선출 ▲ 총장 선출이다. 예비후보자 모집과 후보자 선출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담당하고 총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담당한다. 예비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과 발굴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중 심사를 통해 3명 이내를 후보자로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때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되고 각 후보는 총장후보자 평가표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네 개 영역에서 평가받는데, ▲ 과학기술 전문지식 (경력, 연구실적 등) ▲ 기관경영 경험과 덕망 (경력, 학계 및 사회적 기여도, 조직운영사례 등) ▲ 혁신의지와 리더십 (전략수립실행 역량 등) ▲ 국제화 마인드 (국제활동 경력 등) 영역과 같다.

심사 후 각 위원들의 산술평균 점수 상위 3위 이내의 후보가 총장후보자로 선정되어 이사회에 전달된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승인 이후 정식 취임했다.

### [국양 신임 총장은 어떤 사람인가?]

국양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고체물리학 실험으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벨 연구소(AT&T Bell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27년간 재직하는 등 40여 년간 연구를 진행해 온 대표적인 나노과학자이다. 동시에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국제 연구실 사업 등으로 2018년까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맡아오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국내 최대 민간 과학학술기금 지원기구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힘쓰고 있다.

주요 연구 활동 경력	주요 기관/조직 운영 경력
미국 AT&T 벨 연구소 연구원 STM, 고체 표면 연구 (1981.9~1991.2)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2006~200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정교수 학생 지도 경력 다수 (1991.3~1996, 1996~2018.2)	산업자원부 나노산업화위원회 위원장 (2002~2004)
이화여대 양자나노과학연구소 석좌교수 (2018.9~현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2014.7~현재)
한국, 일본, 영국 등 다수 응용물리/ 나노과학 학회지 편집위원 (2002~현재)	

△ 국양 DGIST 총장 주요경력 <그래픽 = 김준호 기자>

특히 국양 신임 총장은 벨연구소 연구원 시절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을 개발, 1986년 금속 표면을 최초로 이미지화(Image化) 하는데 성공하여 세계적인 나노과학 선구자의 반열에 올라 나노과학 분야를 선도하기도 하였고,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가석학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양 총장은 본지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잠재력이 매우 큰 DGIST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총장직에 지원하였으며, 재임 기간 동안 DGIST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칼텍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DGIST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질문에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몇몇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

어야 하고 둘째,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혁신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셋째,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 후 훌륭한 경력을 쌓아야 한다. 10년 후에는 이 세가지 요건을 최대한 충족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DGIST 구성원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격동적인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DGIST는 지난 15년간 연구원, 8년간 교수와 대학원생, 5년간 학부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다”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즐겁게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gotocern@dgist.ac.kr

# DGIST 제 5대 총학생회 <채움> 출범

## 학생 사회 중심으로 새로운 학생 문화 구축 목표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 DGIST 5대 총학생회 <채움>이 출범했다. 류태승 총학생회장(17)이 이날 출범식을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최원석 부총학생회장(17)과 각 국장들을 포함하여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집행국장 및 집행국원 임명 ▲집행국 소개 및 업무 배정 ▲업무 진행 체계 소개를 했다.

공약 발표도 있었다. ▲학생 사회 소모임 활성화 ▲학내 순환 버스 및 귀성길 셔틀버스 ▲총장추천 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예비군 훈련 공결제 ▲사이버 강의 학점취득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학생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총학생회 <채움>은 ▲구본진 기획조정국장(17) ▲김세현 재무행정국장(17) ▲백주은 행사집행국장(18) ▲이혜인 홍보소통국장(17) ▲윤형근

홈페이지 관리팀장(17)을 비롯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본진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총학생회 회장단의 비전은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학생 문화와 학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해하고, 학생회에서 할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현 재무행정국장은 “효율, 신뢰, 합리를 재무 행정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며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예산서의 실수는 학생회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의 신뢰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백주은 행사집행국장은 행사집행국이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 성격상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가 다수임을 강조하며 전년도와 사



△ 총학생회 채움 구성원 (제공 = FICS) 도록 하겠다”며 총학생회와 학부생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례를 이어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개정할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인 홍보소통국장은 “홍보소통국은 말 그대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집행부이다. 학생 자체 목소리를 키울 수 있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 총학생회 <채움> '공약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 지난 24일, 정책설명회서 공약 이행 계획 발표

지난 24일, DGIST 총학생회(채움)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총학생회는 각 국 별로 어떤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 소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DGIST 방송국 FICS가 중계했으며, 유튜브에서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다.

총학생회는 모든 공약에 중요도를 매겨 이행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각각 1순위, 2순위, 3순위, 3단계로 부여되었다. 총학생회는 1순위로 지정된 공약부터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각 국별 최우선순위 공약을 소개한다.

류태승 회장과 최원석 부회장은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구성원과 튜터 봉사시간 부여 및 성적 증명서 기재와 학생자치단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자치 단체 구성원과 튜터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하거나, 성적 증명서에 관련사실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입학처에 자치단체 구성원 기록 명문화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해 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월 내 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할 계획이며, 각 자치단체에 규정과 예결산을 공개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뿐 아니라 총학생회 산하기구(행사준비위원회, 미담장학회)의 3년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문제 내역 소명을 요청한 상태이다.

기획조정국은 소모임 활성화와 유가읍 순환 셔틀 및 귀경 셔틀, 총장 선출 투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DGIST는 과 개념이 없어 비슷한 진로를 가진 학생간 교류가 어렵다. 기획조정국은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비슷한 진로의 동기, 선후배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

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모임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획조정국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학회 및 소모임 문화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담/경력개발센터와 공조해 실비성 운영비를 각 소모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상담/경력개발센터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유가읍 순환 셔틀 및 귀경 셔틀 신설 공약도 기획조정국이 추진한다. 기존 대곡역 셔틀 노선을 변경, 유가면을 지나도록 하여 대곡역 셔틀이 유가읍 셔틀도 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조정국은 올 7월 셔틀버스 노선 재계약 때 계획을 반영하려 한다. 이미 대학본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귀경길 동대구역 셔틀도 올 추석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정국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선출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위원 포함과 총장 직선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총장 선출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이 공약은 3순위 공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무행정국은 학생회비 운용, 캠퍼스 내 시설 개선, 학생 대의원회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재무행정국은 지난 20일부터 총학생회비 정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모집하고 있다.

이 TF에서는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타 대학 운영 사례를 조사하게 된다.

E7의 Gate 3를 제외한 출입문은 사용하기에 너무 무거워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재무행정국은 이 출입문을 자동문으



△ 발표하는 류태승 총학생회장 <사진 = 이동현 기자>

로 바꾸려 한다. 현재 시설팀과 연락하였으며, 자동문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무행정국은 4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팀과 안전보안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무행정국은 학번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 대의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학생대의원회는 학번당 5%상당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적은 수로 구성된 전학대회보다 학생 의견을 다원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4월 말 학생대의원회를 소집하고, 5월초부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사집행국은 군 복학생의 예비군 훈련 공결제 도입 공청회와 생리공결제 공청회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행사집행국은 군 복학생의 예비군 훈련 공결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 군 휴학생이 부대 내에서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공청회 발표자는 추후 모집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 작성 중이다. 군 내 사이버 강의를 실시한 국내 대학 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생리공결제도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생리공결제 도입을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9월내 기획 및 발표자 모집 중에 있다.

홍보소통국은 학부생 40인 청원제도와 가이드 콘텐츠 제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보소통국은 이전 총학생회에서 진행되어 오던 홈페이지를 활용해 청원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내 게시물 승인 권한을 학생팀에서 자치단체연합으로 양도 요청할 계획이다. 홍보소통국은 4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안정화 및 보급할 예정이다.

FGLP나 ICT봉사, DURA 등 해외프로그램을 다녀온 선배의 조언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홍보소통국은 4월 말부터 유경험자들의 경험을 모을 계획이다.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 TA 일부 총원, 공백은 여전히

### TA 일부 총원되었으나, 여전히 부족

### TA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봄학기 개강 이후 Teaching Assistant(이하 TA)의 공백이 발생했다. 학기 개강 직전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기존 TA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학부팀은 TA를 새롭게 채용하여 총 8명의 TA가 총원되었다. TA 총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수학 1명 ▲ 글쓰기 2명 ▲ 리더십 2명 ▲ 영어 2명 ▲ 철학 1명  
물론 일부 TA가 총원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가을 학기의 경우 영어 교과 TA는 4명이었다. 4명의 조교가 튜터링을 가졌던 지난 학기에 비해 이번 학기는 2명의 조교가 이를 담당한다. 그로 인해 Communication Skills(이하 CS) 교과목에는 튜터링을 배정하지 않았다. CS 과목은 대개 '새내기'인 1학년이 주로 듣는 과목이며, 대다수 학생이 영어로 된 편집물(논문, 기사 등)을 처음 보겠지만 TA가 배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또한 과제물에 대한 확인 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문소양 과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문소양 과목 특성상, 서평을

쓸 일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의 서평을 교수 혼자 감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인문 소양뿐 아니라, 연구자로서 글 쓰기 실력 역시 갖추어야 할 학부생들은 제대로 된 첨삭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TA 부족으로 인해 교수는 커리큘럼에 변화를 가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확률과 통계 및 실습 과목에도 TA가 없이 진행되어 과제 채점이 불가능해 과제 점수를 없애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율을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아르바이트 형태, 단기적 고용 형태로 인한 잦은 교체 및 TA 교육의 재발생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외부 채용이 늦어진 점은 개강 이전 고용 형태의 급한 전환으로 인한 결과이다. 학부팀에 따르면, 봄학기 개강 이전 여러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외부 TA 채용 형태를 기존 기타소득자 채용 형태에서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로 변경하였다. 외부 TA의 경

우, 기타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채용 형태에 의해 고등교육자 지원이 감소한 점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일하던 TA에게 학기 직전 더 이상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통보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현재 학부팀은 외부 TA 채용에 대해 현 고용 형태인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닌 사원 형태의 채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간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장기적 고용 보장으로 교육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학생을 위한 학교를 이룩해야 한다. 또 한번 소탐대실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임다빈 기자 frankful@dgist.ac.kr



△ 강의용 책상 (이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 <사진 = 배현주 기자>



# “말보다 행동으로”, <채움>이 말하는 <채움>이란...

총학생회장단 <채움> 인터뷰

직접 물어본 <채움> 운영 기초

당선 후 약 일주일 만에 만난 회장단 두 명은 자축할 틈도 없이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만큼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답변에서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Q.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류태승 총학생회장 (이하 류):** 이번 5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17학번 류태승입니다.

**최원석 부총학생회장 (이하 최):** 반갑습니다. <채움>의 부학생회장 17학번 최원석입니다. 학보사, 미담장학회를 거쳐 학생회에 참여하게 됐다. 학생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능력이 되는대로 직접 참여하고자 학생회에 몸담게 됐다. 유능한 부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작년 말 정기선거와 3월 재선거 사이에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회장단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

**류)** 일단은 지난해 선거가 무산됐을 때부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후 진행 상황을 냉정히 바라봤다. 비대위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총학생회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편집장 신분으로도 학생사회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비선출직이다. 선출권력인 학생회장이 돼서 학생사회의 강한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동안 등록금심의위원, DNA 기자, 선거관리위원 등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하며 학생사회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원석을 설득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최)** 설득을 당했다. 사실 작년부터 부회장에 관심이 있었다. 유능한 러닝메이트가 보이지 않아서 적극적인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내심 부편집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류태승 편집장이 책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선뜻 먼저 제의를 해 주어 흔쾌히 함께 출마했다.

**Q. 1대 학생회 이후 오랜만에 경선을 통해 회장단이 되었다. 학생들이 <채움> 회장단을 뽑아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류)** 경선에서 이겼다는 건 유권자들이 상대 캠프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선거캠프와 차별화된 점은 문제의식의 차이가 아닐까.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문제의식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 부회장은 나를 ‘프로불편러’로 지칭한다. 많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쌓여온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했고, 유권자들이 우리가 공약의 형태로 제안한 해결방안에 공감했기 때문에 뽑아준 것이라 생각한다.

**Q. 김근우 전학생회장도 학보사 출신이었고 회장단 두 명 다 학보사 기자 출신이다. 학부생이 적어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좋은 현상은 아닌 듯하다. 이에 대한 회장단의 의견과 앞으로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생각해둔 방안이 있을까?**

**류)**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학보사나 학생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학보사에서 학생회장이나 국원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일반 학부생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기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

사를 작성하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고민한 기자들이 학생회 일을 맡으면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정언유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보사 일과 학생회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기자 신분을 내려놓았지만, 기자로 활동할 때 느낀 문제점들을 선출직인 학생회장의 신분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총학생회장 류태승  
(사진 = 배현주 기자)

**최)** 아쉬운 대목이다. 학생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학보사 출신 학생들이 학생회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이런 기회의 부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학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많고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창구도 충분한 사회다. 앞으로 우리 회장단이 추진할 활동기록 명문화 및 봉사시간 지급 등의 활동이 이를 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Q. 총학생회장단은 리더이기도 하면서 중개자의 역할도 맡는다. 앞으로 선출될 총장, 대학본부, 학생팀, 학부 교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류)** 공약 중에서 총장과 직접 만나 추진할 항목이 상당 수 있는 만큼, 간담회를 마련해서 구성원의 얘기를 총장과 공유하려 한다. 학생들이 본부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학생회가 대표로 건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이다. 본인이 편집장이던 시절에도 메일만 드리면 바로 만날 수 있었으니, 학생회장이 되어서도 총장과 대담을 나누는 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학생팀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라서 앞으로로도 많은 대화를 나눌 것 같다. 현재 학생회를 담당하고 계신 행정원 선생님과의 안면이 있는 사이라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남에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다.

대학본부 내에서의 다양한 행정팀들과도 만날 일이 많다. 지금 준비 중인 공약만 해도 총무복지팀, 학생팀, 학사팀, 학부팀, 기획팀, 입학팀, 국제협력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회장단은 실무적인 부분을 다뤄야 하니 팀장님, 처장님들과 많이 만날 것 같다. 항상 공문과 사업계획서가 동반될 거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정기보고를 매개로 공개할 계획이다.

**Q. <채움>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 사이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류)** 저는 회장과 부회장이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회장과 부회장 모두를 보고 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회칙으로는 구분은 되어있지만, 회장이 혼자서 학생회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이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회장이 쓰는 문서는 항상 부회장이 서명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책은 다르지만 역할은 동일할 것이다. 동등한 관계여야만 둘 중 누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비슷한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입장을 낼 수 있다. 확장하자면 국장단까지도 회장단과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학생회가 위계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 아니었으면 한다.

**최)** 류태승 회장과 정반대로 생각한다. 저는 위계질서가 확실한 집단을 선호한다. 그래서 부회장의 역할도 회장을 보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이렇게 달라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학생회를 꾸려갈 예정이다. 회장은 대외적인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류태승 회장은 추진력이 상당히 좋고 포용력도 좋다. 본인(원석)이 잘 하는 역할은 다르다. 본인은 진행중인 활동을 검토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공약의 이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등에 집중할 생각이다.



△부총학생회장 최원석  
(사진 = 배현주 기자)

**류)** 최원석 부회장이 저의 부족한 면을 많이 보완해준다. 회장단 둘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똑같은 사람 둘이 함께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할 텐데, 서로 다른 사람이라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울 수 있다. 이게 시너지가 된다. 실제로 DNA를 운영하면서도 편집장, 부편집장으로 만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기에 같이 출마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Q. <채움>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해달라.**

**류)** ▲학교를 완전하게 ▲ 신뢰를 견고하게 ▲ 권리를 소중하게 ▲ 문화를 풍성하게 ▲ 학생 목소리를 더 크게 라는 다섯가지 가치를 선거캠프 시절부터 공유해 왔다. 이 다섯가지 가치가 한 데 모이면 <채움>이 꿈꾸는 학생사회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가치의 뿌리는 학생이다. 당연한

애기지만, 학생회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당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으면 좋은 학생회가 아니라 있어야 하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 5년간 성장해온 DGIST 학부를 이제는 풍부하게 채우고 싶다.

**최)** 한 단어로 학생회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제도화’일 것이다. 오래도록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총학이 교체되더라도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다음 총학이 와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다른 학생이 같은 위치에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사업 내용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전후에 작성하는 분석 보고서나 기간처럼 모든 학생회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관심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회 회의 문건만 찾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Q. 학생참여도가 필요한 공약이 많다. 이런 공약은 학생참여가 없으면 실현이 안 된다.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적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문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갖고 공유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회장단이나 집행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 결국 학생 개인이 가진 문제의식이 얼마나 공유되는지가 학생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일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리 DGIST 학생들은 많이 바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현재, 자치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비슬장학금 등의 제도가 신설되고, 앞서 언급한 활동기록 명문화 등이 정착된다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낼 거라 믿는다.

**Q.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 우리가 내건 공약이 많아서 학생들의 우려 또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 경각심을 느낀다. 총장이 새로 오고, 신입생들부터 등록금을 거두는 등 많은 것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회의 책임도 막중하다. 무엇보다 경쟁을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부담이 된다. 허나 잘 준비해 왔고 철저히 계획하고 있으니 말보다 결과로 보이는 학생회가 되겠다. (웃음)

강휘현 기자 pull0825@dgist.ac.kr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배현주 기자 bhjoo55@dgist.ac.kr



# [2018 UGRP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융합 및 통합 주행 알고리즘 개발'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융합 및 통합 주행 알고리즘 개발', 본 주제는 UGRP 장영실 코스에서 최우수과제상을 수상했다. 배인환, 오민호, 김태경, 주현수, 김영후('16)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했으며, 임용섭, 최경호 교수가 공동지도를 맡았다.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AV) 기술은 사용되는 센서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센서가 사용되더라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은 다양하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하며, 본 팀은 알고리즘 '혜안'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 '혜안'은 실제 주행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전처리하여

상황을 인지하는 Perception 단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경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Processing 단계, 플랫폼의 동작을 관리하는 Control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더욱 집중한 분야는 Perception 단계인데, 그중에서도 MVP(Mutual Validation Procedure) 시스템과 ELIX(Enhanced Lane Tracing with histogram Extension)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표지판 인식 알고리즘을 일컫는 MVP 시스템은,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SVM(Support Vector Machine) 방식의 한계(주석: 이미지 기호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낮은 정확성, 단일 알고리즘)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이다. ELIX는



△ UGRP 팀이 제작한 자율주행자동차 <제공 =UGRP 팀>

적은 연산량으로 정확하게 차선을 인식한다는 장점이 있는 차선인식 알고리즘이다.

이후 '혜안'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2018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 부문에서 동상, 기술보고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본 팀은 대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자동차안전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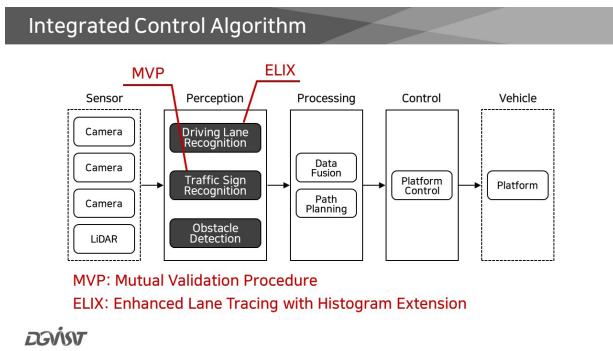
본 팀의 행보는 계속된다. 배인환('16), 오민호('16)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드는 산학협력 UGRP를, 김태경('16)은 자율주행하는 소형 로봇 제작 관련 UGRP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UGRP를 진행할 학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DGIST의 커리큘럼은 타 대학보다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하

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학부생들 모두 느끼듯이, 실무능력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 하지만 UGRP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의 실력도 레벨업할 수 있고, 모두가 부러워할 실적도 만들 수 있다. UGRP 만큼은 설령설령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18 UGRP 우수그룹 발표회(2019.1.17) 발표 영상'을 Youtube (https://youtu.be/zDe5XdCXai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지 기자 mangojuice@dgist.ac.kr



△알고리즘 '혜안'의 모식도 <제공 =UGRP 팀>

# [2018 UGRP 연구] 'small RNA 치료제의 개발'

남홍길 교수(뉴바이올로지 전공)와 김지은('16), 오수찬('16), 이동호('16), 정태근('16), 황정아('16)학생이 'small RNA 치료제의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mall RNA 치료제의 개발'은 2018 UGRP 프랜시스 크릭 코스 과제이다. 이 연구는 UGRP 위원회 제안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Top-Down과제이다. 2018 UGRP 우수과제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small RNA가 노화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한다. 이 small RNA는 노화에 따라 발현량이 변화한다.

###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본 연구진은 앞서 이야기한 circulatory tRNA halves가 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RNA의 양이 변하면 노화속도가 변하는지, 변한다면, 이 small RNA가 노화 증상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앞으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tRNA는 circulatory tRNA halves를 의미한다.

더욱 간단히 표현하면, '생명체가 늙으면 tRNA의 양이 변한다. 그렇다면, tRNA의 양을 줄였을 때처럼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우리가 젊어질까?'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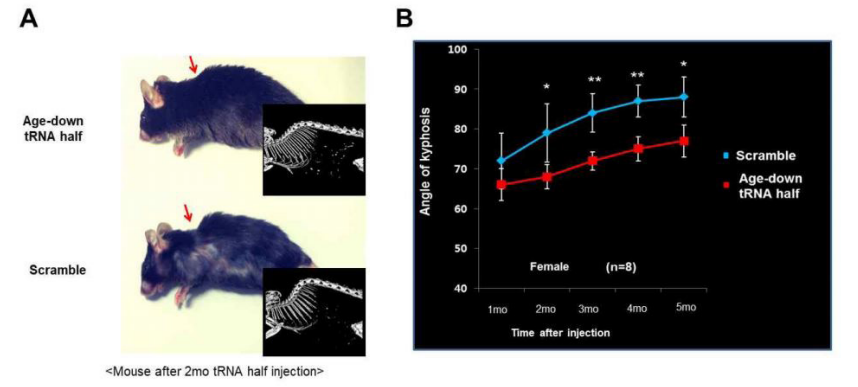
### [실험 방법]

연구진은 쥐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명윤리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 수량의 쥐를 사용하였으며, 쥐의 신체능력을 측정할 때도,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였다.

tRNA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연구진은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추정되는 tRNA를 제작하여 쥐에게 주입하였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제작된 tRNA를 쥐에게 꾸준히 주입하여 체내 tRNA양을 조절하였다. 나머지 한 그룹에는 무작위 서열 tRNA, 즉 노화와 관계 없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tRNA를 주입했다. 그리고 두 그룹의 노화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였다.

'늙는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연구진은 네가지의 기준을 정하였다. ▲탈모 ▲운동능력 ▲체내 대사량 ▲척추측만증으로 기준을 정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였다.

tRNA가 주입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가지게 되었을까. 노화가 일어나며, 털은 본래



△ tRNA 주입 후 2개월이 지난 모습(왼쪽), tRNA 주입후 경과 시간에 따른 허리굽은 각도(오른쪽) <제공 =Small RNA팀>

의 구조를 잃어버리고 약해지게 된다. 연구진은 모발이 얼마나 건강한지 측정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털의 세부구조를 관찰하였지만, 두 그룹간에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쥐도 늙으면 운동능력이 감퇴한다. 운동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앞다리 힘을 측정하고, 근지구력, 평형감각을 측정하였다. 두 그룹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체내 대사량 감소는 주요 노화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대사량 측정장비를 이용해 tRNA 주입이 대사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두 그룹의 기초대사량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화하면서 등뼈가 굽는다. tRNA가 쥐의 허리굽음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micro-CT를 사용하여 쥐의 뼈 구조를 관찰하였다. 아래 그래프는 tRNA주입 후 경과시간에 따른 척추 측만 각도를 나타낸다.

빨간 선이 tRNA가 주입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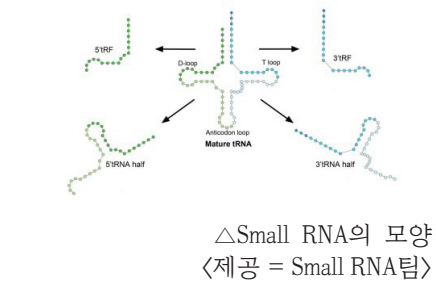
tRNA를 tRNA가 투여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등이 천천히 굽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결과와 의의, 소감]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tRNA half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측만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tRNA half의 양과 노화현상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 tRNA half가 확실한 효과를 보일 경우, 인간에게도 적용해 볼 것이라고 한다.

연구에 참여한 이동호 학생('16)에게 소회를 물었다.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앞에 무수히 많은 길이 있어 도저히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모를 때도 있다. 잘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오히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 [연구를 위한 배경지식]

small RNA란 무엇일까? small RNA는 길이가 200nt, 즉 200개 이하의 염기로 구성된 비암호화 RNA분자를 말한다. 이런 small RNA는 micro RNA, small interfering RNA등 여러 종류가 있다. small RNA는 다양한 유전자를 전사 후 과정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현상의 주요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small RNA는 노화 과정에서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small RNA가 노화의 지연, 또는 촉진에 관여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small RNA는 '체내에 다수 존재하는 RNA조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circulatory tRNA half 라는 small RNA에 집중하였다. 이 small RNA는 혈액 속 small RNA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



# 중간고사 끝나고 뭐하지? 'DGIST 학생 공연 보러 오세요'

## DGIST 공연단체 일정 알아보기

중간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으로 각 공연단체의 공연 시즌이 돌아올 전망이다. DNA 취재 결과 대부분의 공연 동아리들이 중간고사 이후 준비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에게 공연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DGIST의 매력적인 기타 동아리 시나브로의 공연이 5월 2일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18년에도 E7과 기숙사로 비 두 차례의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던 시나브로의 이번 학기 공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신입생 환영회 당시 고양이 소리를 따라해 보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번 공연의 선곡에도 학생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나브로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DGIST에서의 힘든 삶에 웃음을 불어넣어 줄 유쾌한 점아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점아비는 5월 15일과 17일에 걸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학기 “연애하기 싫은 날”과 “동물학교 -은색 털의 비밀”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던 점아비의 새로운 작품에 많은 DGIST 학생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의 마지막은 DGIST 유일의 버스킹 동아리 버스왕이 신나는 공연을 준비 중이다. 버스왕측은 현재 5월 22일로 공연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DNA 취재 결과 밝혔다. 매 공연 색다른 음악을 선보여왔던 버스왕인 만큼, 이번 공연의 색에도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DGIST 유일의 응원단 D.ONE 역시 같

단체명	공연 일정
시나브로	5월 2일
점아비	5월 15일/17일
버스왕	5월 22일
D.ONE	5월 22일 밤 9시

△ 동아리공연 일정 <그래픽 = 이동현 기자>

은 날 공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ONE 측은 현재 공연 날짜를 5월 22일 밤 9시로 확정 짓고, 공연을 위해 연습 중이라고 밝혔다. 입학식을 비롯한 많은 행사에서 학부생들에게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힘을 주었던 D.ONE이 이번에는 어떤 공연

으로 학부생들의 지친 삶에 활력소가 되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동아리 연합회 측은 현재 화양연화 BGM, 보이스 피싱, 십이시로 구성된 연합 공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 [문화계절] 봄, 뮤지컬 '영웅'

2019년, 안중근 의거 110주년

### 안중근 의거 다루는 인기 뮤지컬 '영웅'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하얼빈(현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역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총소리의 주인공은 대한 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 15가지를 당당히 밝히며, 독립에 대한 조선의 의지를 세계에 밝힌다.

#### [민족 영웅, 안중근]

뮤지컬 '영웅'은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일대기를 토대로 만든 창작 뮤지컬이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첫 공연이 시작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연이 계속 되고 있다.

본 기자는 3월 1일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영웅을 관람하였다. 원래 공연을 볼 계획이 없었지만 공연 2시간 전 티켓을 예매 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티켓을 양도 받아 공연을 관람 할 수 있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공연을 보기 시작했지만 뮤지컬 첫 장면부터 감동적이고 웅장했으며, 공연이 끝날 때까지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 안무 덕분에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다. 본 기자는 문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단지동맹부터 죽음까지]

영웅은 안중근과 11명의 동지가 러시아의 자작나무 숲에서 본인의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며 단지동맹을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뮤지컬은 러시아, 조선을 배경으로 한 무대가 번갈아가며 진행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가는 계기,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모습을 본 궁녀 설희는 대한 황실의 비밀 정보 조직 제국인문사의 수장인 김내관에게 일본으로 가 독립운동을 하겠다 말 하고,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토에게 접근한다. 한편, 안중근은 러시아에서 독립군들과 중국인 동료들과 함께 지내다 일본군들의 추격을 피해 피신한다. 추격을 피

하는 도중 안중근의 중국인 동료 왕웨이 가 희생당하고, 설희로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 우덕순과 조도선은 채가구 역에, 안중근, 유동하는 하얼빈 역에 잠복한다.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 오전 10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하얼빈역에 멈추고 이토 히로부미가 내려 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안중근은 그에게 총 세발씩을 명중시켜 그를 사살한다. 곧바로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은 체포 되고 공판 법정에서 선다. 법정에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죄악 15가지를 당당히 밝히고, 사형선고를 받는다. 안중근은 감옥에서 모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사 된다. 특히 배우들의 노래는 공연에 몰입감을 더해준다. 공연에 나오는 노래 몇 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단지동맹'

단지동맹은 뮤지컬 첫 곡으로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이 단지동맹을 맺으며 조국을 위한 결사를 다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함을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심리가 잘 나타나는 곡이다.

#### '영웅'

영웅은 타지에 와 독립운동을 하며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 품은 큰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안중근의 심리가 잘 묘사된 곡이다.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다.

안중근이 밝힌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 ▲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 현재 대한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친인공노의 죄 이 노래를 부르는 안중근은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일제의 잘못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 '장부가'

장부가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 안중근이 부르는 곡이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들지만,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이라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대한의 독립을 염원하는 안중근의 심리가 잘 나타나는 노래이다.

2019년 올해는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3.1 운동 100주년, 독립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뮤지컬 영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 <제공 = 부산일보>

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동양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긴 '동양평화론'을 집필한다. 마침내 1910년 3월 26일 사형집행일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가 손수 지어보낸 수의를 입고 본인을 돌봐준 간수 치바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 적힌 붓글씨를 선물한다. 안중근은 자신을 격려하는 어머니 조마리아의 환영을 보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극을 마친다.

#### [뮤지컬 속 노래]

뮤지컬 속에서 거사를 준비하는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의 심리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노래 가사를 통해 잘 묘

####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억하며는 죽음을 각오하고 조국과 나라를 잃은 동포를 위해 거사를 다짐하는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이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본인들이 희생하는 것은 운명이며, 조국, 가족, 동포들과 후손들을 위한 일이므로 반드시 거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곡이다.

####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는 뮤지컬 영웅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법정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당당히 밝히며 그의 잘못을 고



# [DNA&책]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 동물권 입문, 이 책은 어떻게

작년 9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여덟 살 암컷 퓨마 뽀롱이가 사육사의 실수로 우리를 벗어났다. 탈출 후 동물원 내에서 발견된 뽀롱이는 마취총을 맞고도 잡들지 않아 끝내 사살되었다.

지난 1월부터 2월 한 달간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에서 상록구 일대 배수구와 녹지 일대에 쥐약을 살포했다. 길고양이 구조 중 뒤늦게 쥐약을 발견한 캣맘의 신고로 전량 회수되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일대에서 폐사한 개체가 세 마리 발견되었다. 캣맘은 그 중 한 마리의 폐사 원인을 경찰 과학수사대에 의뢰하였다.

#### ▲ 탈출 후 사살된 대전 동물원의 뽀롱이 ▲ 쥐약에 폐사한 안산시 길고양이

당신은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보고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누군가는 퓨마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살하는 것이 옳으며,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살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퓨마의 사살은 불필요했으며 쥐약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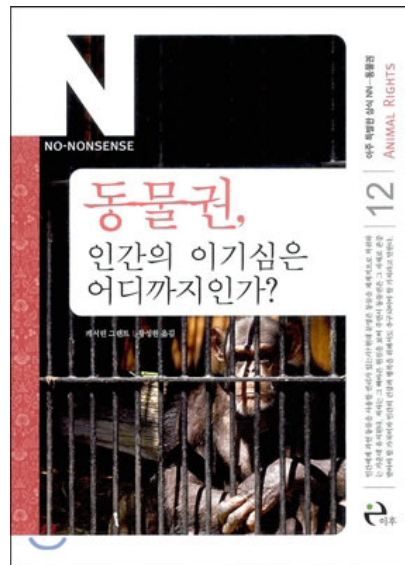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동물들을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입장이다.

#### [동물권에 대한 딜레마]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동물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를 보여준다. 대부분 반려동물은 펫샵에서 분양된다. 그렇다면 펫샵의 동물들은 어디서 왔을까? 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아지공장 또는 퍼피밀(Puppy mill)이라고 불리는 시설에서 공급된다. 강아지공장이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강아지를 대규모 교배,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은 생후 2개월 즈음 어미와 분리되어 펫샵으로 가게 된다. 사람들은 '더' 작은 강아지를 선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끼 강아지가 정상적으로 사회성을 기르고 의사소통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간은 어미와 함께 지내야 한다. 인간의 수요에 따라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갓난 새끼를 어미와 생이별하게 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가?

미국의 철학자 톰 리건은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존중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강아지공장은 생명체의 가치를 돈이 되는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시설이다.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치를 폄하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강아지공장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동물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동물



△캐서린 그랜트, 황성원 옮김 | 255쪽 |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소개하고, 동물권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하고자 한다.

동물권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까,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책은 동물권과 관련된 지식을 전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동물권이 무엇인지에서 시작하여, 사육, 동물을 이용한 오락, 동물실험, 포피산업 그리고 개인이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까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당신이 알고 있던 사실부터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문제점을 찾아낸다. 문제를 제시하고,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불어 살기'라는 챕터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김현아 기자 hyuna0827@dgist.ac.kr

## [오피니언] 길 잃은 자와 지도

### 학생 자치 향한 작은 관심, 학생 권리 향상의 시작

총 투표율 53.96%, 60.1%의 득표율로 총학생회 [채움]이 5대 총학생회로 선출되었다. 내 기억과 선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연장투표로 이어지지 않고 무사히 종료된 첫 번째 선거이다.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등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주변 지인들과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효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었고, 이는 곧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도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808명 중 404명, 404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좁은 사회에서 우리는 숨쉬고 있다. 이번에는 438명의 투표로 선거가 무산되지 않았지만, 분명 우리의 현재는 위태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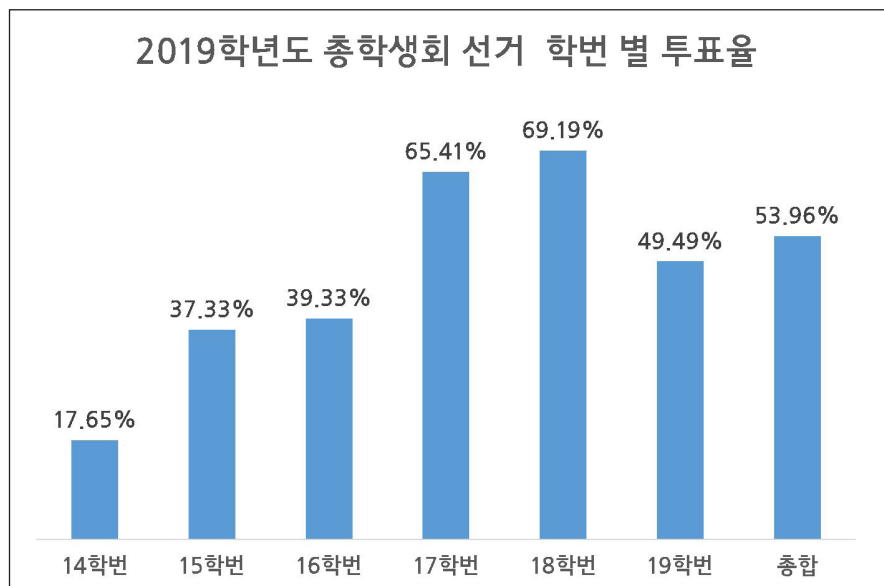
대학가 전반의 학생자치문화는 점차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현상에 대한 이유를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뚜렷한 이유는 명백하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이들에게 사회는 사유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죄여오는 압박에 눈 앞의 현실 너머를 통찰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나 하나 살기 벅찬 세상에서 나 이외의 삶까지 뒤돌아볼 여력은 오래 전에 말라버렸다.

이제 학생들은 말라버린 샘 앞에서 학생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샘의 존재조차 잊고 제 갈길로 바쁜 사람들도 많다. 물음에 답해줄 사람이 없

기에 희미한 흔적을 관찰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시야를 우리 학교로 돌리면 조금 다른 맥락이 덧입혀진다. 6년 차 신생학교. 지난 몇 년간은 학생 자치의 기틀을 다졌고, 이번 총학생회는 이를 '채우'겠다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대학가 전반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자치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간신히나마 숨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자치는 곧 학생집단의 권리 향상과 맞닿아 있다. 집단은 개인보다 강하다. 학생사회와 교류하는 외부 집단으로부터 학생 개개인을 보호한다. 개개인의 필요를 한번에 모아 관찰시킨다. 학생자치가 견고할수록 외부 집단과의 관계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자치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학생사회와 교차점을 갖는 다른 집단에서 약자성을 갖게 된다. 내가 온전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실 있고 견고한 학생자치는 결국 나를 위해 필요하다.

자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찰시키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개인이 목소리를 낼 의지가 없고, 어떤 의견을 주장할지 판단하지 않



△ 학년 별 투표율 < 그래픽 = 김승규 기자 >

은 상황이라면 뜯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지점에서 있다.

그렇지만 세상에 지쳐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는 없다. 구조의 피해자에게 구조에 순응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의 비판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이다. 그 이후의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소시민으로 돌아가든,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든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구조의 불합리함을 인지한 피해자는 가해자로 변모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학생자치는 개인 몇몇의 힘으로

뿌리내릴 수 없는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학생자치가 갖는 힘이 더욱 강력해진다. 따라서 학우들이 한 가지만큼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학생사회에서 어떤 학생자치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인식하길 바란다. 그 작은 관심이 우리학교의 학생자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거름이 될 것이다.

오서주 기자 sjice@dgist.ac.kr



# [오피니언] 샹크스, 싸움의 끝과 시작은 어디인가

‘이 싸움을 끝내려왔다’ 는 샹크스, 그의 ‘싸움’이란?

샹크스, 그는 누가인가? 일본 애니메이션 이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 동료가 되라’고 외쳤던 루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원피스’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원피스’를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은 루피가 어렸을 적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바다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한 인물이 샹크스라는 것을 알 것이다.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샹크스가 루피를 구할 때 괴수에 의해 한쪽 팔을 잃었다는 것과 먼 훗날, 정상결전에서 에이스와 흰 수염이 죽은 후에 “이 전쟁(싸움)을 끝내려 왔다!”는 대사를 외친 인물인 것까지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만화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샹크스를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샹크스가 2차원 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8월 말, DGIST는 과기부의 오랜 감사로 한창 뒤숭숭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관련해 디지스트신문 DNA에서는 ‘과기부 감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보통 DNA에서 발행하는 기사에는 댓글이 많아야 10개가 채 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발행 후 무려 49개의 댓글이 달렸다. DGIST의 운영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그 자리에 샹크스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아니, 태어났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샹크스는 다수의 익명 댓글이 논쟁을 이어가는 댓글창에서 태어나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이 싸움을 끝내려왔다!”

외침이 무색하게도 그는 싸움을 끝내지 못했다. 그저 온라인 공간에 무의미한 byte를 남긴 채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자아를 댓글이라는 형태로 DNA 블로그 곳곳에 남겼다. 특이한 점은 다양한 샹크스들의 IP주

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DNA 블로그의 불특정 독자 일부가 ‘샹크스’라는 별칭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DGIST 와이파이나 기숙사 와이파이, 개인 모바일 데이터 등 학교 안에서 개인이 활용가능한 IP주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샹크스가 1명이 아니라는 확정은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샹크스의 출현 이후, ‘붉은머리 샹크스’, ‘검은 수염’, ‘흰수염’과 같은 아종이 발생하고 그 아종의 IP주소 역시 동일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독자가 스스로를 ‘샹크스’로 지칭하고 ‘싸움을 멈추기 위해 등장’하는 현상은 DNA 블로그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유행인 것이다. (주석: 다수로 추정했지만, 편의상 ‘그’로 지칭한다.)

‘샹크스가 끝내고자 하는 싸움’은 무엇인가. 나는 샹크스가 출몰하는 기사를 모아 기사가 지닌 성질을 대략적으로 묶어 보았다. 샹크스는 2018년에 진행된 국정 감사와 관련한 기사에 8번, 정규직 전환 관련한 기사에 2번, 오피니언에 4번, 총학생회 선거관련 기사 2번, 그 외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기사에 남긴 댓글 6번을 합해 총 22차례 등장했다(편집자 주: 2019년 3월24일 기준. 이후 기사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스트레이트 기사 등을 제외하고, 기사가 다루고 있는 토픽으로 미루어 볼 때 샹크스는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기사에 출현한다. 실제로 그가 등장하는 기사에는 그를 제외한 다른 독자들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으며, 기자의 주장이 담긴 기획기사나 오피니언(주석: 기획기사와 오피니언은 기자 개인의 의견을 주제로 서술한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에 거의 항상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샹크스가 끝내고자 하는 싸움’은 ‘기사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독자들의 의견 충돌’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싸움’, 민주주의의 시작

도달한다. 이를 통해, 샹크스가 평화주의자이며 본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든, 본인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간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체되지 않은 표현이 난무하는 21세기 인터넷 문화에서, 샹크스는 DNA 블로그 내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등장한 ‘인터넷 히피’인 것이다.

관 형성과 사건 판단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자 시민인 독자들은 신문이나 기사가 지닌 정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기사를 통해 전달된 내용을 비평적, 창조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비평적,



△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샹크스’

(C)尾田栄一郎/集英社・フジテレビ・東映アニメーション

그러나 나는 샹크스의 인간상에 대한 가치평가를 더 깊게 다루는 대신, 그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고 싶다. Annemarie Mol은 『Body Multiple』을 통해 존재론적 실체를 어떻게 새로이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어떤 객체의 실체는 객체를 떠올리는 주체의 다양한 행위와 주체가 가진 입장에 따라 새로이 제정(enact)될 수 있다. 그렇게 제정된 객체는 하나 이상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통일된 관념을 공유하는 복합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Mol의 이 주장을 샹크스에 빗대어 해석했을 때, 존재하지 않거나 규정되지 않았던 DNA 기사 내의 댓글들은 샹크스를 통해 ‘제정’된다.

즉, 샹크스는 “이 싸움을 끝내려왔다!”는 댓글 한 줄을 통해, DNA 기사 아래에 공유되는 독자의 의견을 ‘싸움’으로, 해당 기사를 싸움을 유발하는 ‘싸움터’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인 한 줄 댓글은, 싸움일 뿐인 댓글타래는 멈춰져야 하고 해당 기사가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표로 작동한다. 문제는 싸움을 끝내려는 샹크스의 행위가 또 다른 싸움을 촉발하는 매개로 작용하는 경우다. DNA 기자들 중 샹크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대다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슬린다’ 등의 의견을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DNA기자인 본인이 샹크스 출현 약 6개월 전에 쓴 글에도 ‘그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하고, 내가 쓴 기사가 한낱 싸움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다.

기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기사의 목적은 단순히 사건을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사는 사건에 대한 기자의 생각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가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히 사건의 발발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라고 해도, 어떤 사건을 기사로 다루느냐에 따라 독자의 가치

창조적 수용’활동의 한 사례다. 글이 갖춰야 할 기본예의와 대화법을 준수한 댓글이라면, 그것이 기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해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샹크스를 통해 DNA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단순히 ‘싸움’으로 치환된다. 즉, 독자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생산적 토론을 위한 활동은 본래 의의를 잃고 ‘싸움’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뜻과 ‘끝내야만 하는 존재’로 제정되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 존재에 대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정의가 비단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관의 교점에 위치한 시민 사회의 유일한 개인 각각은 타인과의 대화와 논쟁을 통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가치)투쟁’을 실천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투쟁, 즉 싸움은 그 너머의 이상향을 향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샹크스의 댓글은 그를 통해 제정되는 기사에 달린 댓글타래를 지칭하는 객체이자, 댓글이 남겨진 기사를 싸움터로 제정하는 주체로도 작동한다. 사회 내에서 신문과 기사, 새로운 댓글 문화가 갖는 의의를 부정하는 그의 행위를 단지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기사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싸움을 끝내려는 행위는 싸움을 끝내지 못한다. 댓글을 통해서 화면 내의 싸움은 그칠지언정,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이 공유되지 못한 채 벽을 쌓아올린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바라건대, DNA 기사 안에서 더 많은 싸움과 투쟁이 벌어졌으면 한다. 싸움의 시작은 민주 사회의 또 다른 시작이다.

배현주 기자 bhjoo55@dgist.ac.kr

<p>@샹크스 27.124.***.88 · 2018-10-31 01:56</p> <p>이 싸움을 끝내려왔다</p> <p>제2회 DGIST 학부생 토론대회 개최 예정</p>
<p>@샹크스 27.124.***.88 · 2018-10-30 09:30</p> <p>이 싸움을 끝내려 왔다</p> <p>국정감사에서 DGIST 특정감사와 이사회 징계처분에 관한 질의 이어져</p>
<p>@샹크스 175.223.***.244 · 2018-10-29 14:46</p> <p>이 싸움을 끝내려 왔다</p> <p>국정감사에서 DGIST 특정감사와 이사회 징계처분에 관한 질의 이어져</p>
<p>@샹크스 175.223.***.35 · 2018-09-23 04:34</p> <p>이 싸움을 끝내려왔다</p> <p>[에세이] 나의 패배의식이 향하는 곳</p>

△ 디지스트신문 블로그 댓글창에 등장한 수많은 샹크스들 <사진 = 배현주 기자>





# 진로탐색세미나

## 나의 길을 찾기 위한 첫걸음



강연자	소속	일시
오혜린 동문	노팅엄대학 Ph.D. 과정	4월 3일 12시
임정원 동문	스위스공과대학 Ph.D 과정	4월 23일 18시
이현규 박사	한국투자파트너스 이사	4월 24일 17시
박소형 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5월 15일 17시
배순민 박사	Naver A.I. 및 딥러닝 개발	5월 29일 17시
강병도 박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위원	6월 5일 17시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참여자격  
기초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상담·문의  
상담·경력개발센터 053-785-5603, shji@dgist.ac.kr

디지털신문 DNA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 팔로우를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원내외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 임명

- 편집장 김승규 ('18)
- 부편집장 임다빈 ('18)
- 대학보도부장 임다빈 ('18)
- 사회문화부장 강휘현 ('17)
- 뉴미디어부장 배현주 ('15)
- 학술부장 이동현 ('18)

### 수습 기자 선발

- 김현아 ('18)
- 강광휘 ('19)

선발된 수습기자들이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 디엔네가 만든것우리가 읽자

교내 유일의 언론言論 차치단체 디지털신문 디엔네  
디엔네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자를 모읍니다

모집대상: 19학번 새내기  
면접일시: 4월 22일~26일 중  
지원기간: ~4월 21일 낮12시  
연락처: 010-7169-8094  
김승규 편집장

지원방법: 편집장에게  
이름, 학번, 지원동기  
문자전송

애정과관심바랍니다  
편안히연락주십시오